

도교육청, 교원용 컴퓨터·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 추진

전북형 미래학교 환경 구축 만전

올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보급한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형 학교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교원용 컴퓨터 및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희망조사를 통해 노후된 교원용 컴퓨터 총 4,861대를 노트북 또는 데스크톱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 1인당 1대의 스마트기기와 학급당 1대의 충전보관함을 보급기로 했다.

올해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2학년에 스마트기기 6만4,000여 대를 3천100여 대의 충전보관함과 함께 보급할 계획

현재 스마트기기 보급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위 계획대로 추진되면 올해 도내 보급률 57.5%로 높아져 계약·입찰 과정 등 거쳐 2학기 수업부터 활용 전망 516개 학교에 2474실 대상으로 무선망 추가 구축

이다. 현재 전북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보급률은 21.4%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위다. 보급률이 100%인 부산과 경남을 포함해 충북과 경북 전남 등 11개 시도 교육청은 보급률이 50%를 넘는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올해 전북 스마트기기 보급률은 57.5%로 높아진다.

한편 스마트기기는 계약과 입찰 과정 등을 거쳐 2학기 수업부터 활

용될 전망이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스마트기기의 활용 지원을 위해 516개 학교에 2~474실에 대해 무선망을 추가 구축하고, 스마트기기 활용 수업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집합연수와 원격연수 찾아가는 현장 방문 연수 등 약 2억3천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또 스마트기기 선도교사단 161명과 에듀테크지원단 53명을 조직해

연수와 컨설팅, 우수 수업사례 개발 등 현장 지원도 준비중이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월 14개 교육지원청의 2023년 교육계획 설명회를 통해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학교 정보화지원시스템도 구축했다. 지난해 12월 구축된 학교정보화지원시스템은 모든 교직원 이 내부 메신저 프로그램(M메신저)을 이용해 원클릭 A/S 신청을 하면 학교 유지보수업체에 문자로 즉시 안내한다.

이강 미래인재과장은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해 에듀테크 기반의 전북형 미래학교 구축은 시급하다"면서 "스마트기기 보급 무선 AP구축 등 관련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국제교류 수업학교 공모 추진

도교육청, 17일까지 신청접수... 심사 거쳐 24일 최종 선정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3년 국제교류 수업학교 공모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국제교류 콘텐츠를 활용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전주지초, 전주근영중, 전주신흥고, 고창북고, 전복외국어고 등 5개교에서 시범 운영한 국제교류 수업은 올해 42개교로 확대된다.

올해는 국제교류 온라인 공동수업과, 국제교류 수업 연계 국외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국제교류 온라인 공동수업은 다양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해외

학교와 한국학교 간 실시간 온라인 수업 및 이메일 동영상 업로드 등을 통한 비실시간 교류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국제교류 수업학교에는 온라인 공동수업 주제와 관련해 교류곡을 방문하는 사제동행형 국외현장체험학습 기회도 제공한다.

한편 국제교류 수업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는 오는 17일까지 공모 신청을 해야하며, 심사를 거쳐 24일 최종 선정된다.

정혜영 교육혁신과장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수업 현장 중심의 국제교류를 통해 전북의 학생들이 세계와 소통하며 창의적 인재로 성장해 나갈 기대한다"면서 "국제교류 수업에 관심있는 학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어류양식 생리·생태 다학제적 연구로 학술 발전 기여

군산대 허준욱 교수, 응용생태공학회 정기총회서 학술상 수상

국립군산대학교 해양과학기술대학 해양생명과학과 허준욱 교수가 지난 27일 한국과학기술학회에서 개최한 (사)응용생태공학회 제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허 교수는 어류양식 생리 및 생태와 관련된 다학제적 연구를 통해 128편의 국내외 논문, 12건의 특허와 5건의 저서 실적 등 학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응용생태공학회는 2013년에 창립되어 국내외 생물, 생태, 토목, 도시, 조경 분야의 연구 및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산학연 관련 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생태학적 원리 및 국토 관리 분야에 접목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전문학술기관이다.

허준욱 교수는 2019년 군산대학교에 임용되어 학술 및 연구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며 관련 분야 업적과 성



과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그는 2023년부터 본 학회에 부회장으로 임명돼 활동하고 있다.

특히 2022년 해양수산부 지원의 순환여과식 뱀장어 양식장 수질 및 질병관리를 위한 ICT 기반의 자동화 시스

템 개발 과제, 해상풍력 진화 수산업 융합기술개발 및 물부족 시 수생태계 건강성 감시 대응 기술개발 등 총 3개의 연구 과제를 수주해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충청남도 내수면 어업 육성 및 해양수산부, 환경부 관련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활발한 대외 활동을 하며, 양식장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수산양식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허준욱 교수는 이번 학술상 수상을 통해 "환경 생태 분야와 4차 산업의 융복합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 가는 가운데 환경 생태 기능 및 복원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본 학회의 학술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고, 앞으로도 산업과 학문 분야에서 다른 학문간 융복합 실험을 통해 생태계를 활용한 연구들이 수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중금속 오염 토양 지하수 정화 기술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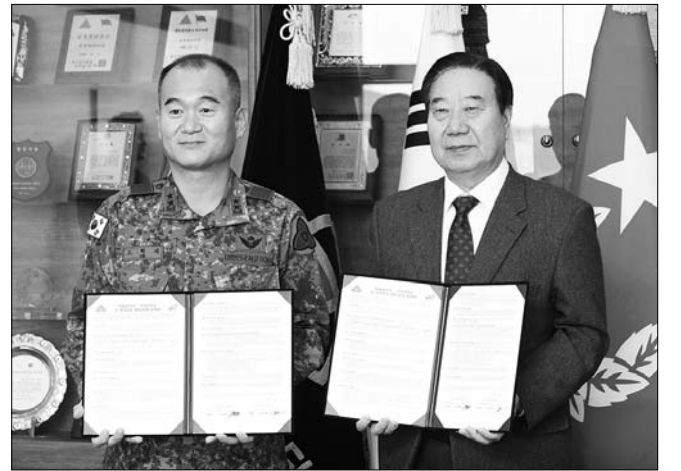
전북대 백기태 교수 환경공학회 학술상

전북대학교 백기태 교수가 대한환경공학회 2023년 학술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백 교수는 환경공학분야에서 토양지하수 환경을 연구하면서 200여 편의 SCI학술지와 25건의 특허를 등록했다.

특히,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를 정화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술연구를 수행,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백 교수는 "지금까지의 이론 연구업적이나 결과는 함께 연구한 대학원생들의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 더 연구개발에 전념해 지하수 토양환경분야의 학문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학교는 2일 제35보병사단과 군 계약학과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석대-35사단, 군 계약학과 운영 협약

군 상담심리학과 설치, 내달부터 2년간 학위과정 운영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2일 제35보병사단(사단장 오혁재)과 군 계약학과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35사단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남천현 총장과 오혁재 사단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우석대학교는 35사단 내에 군 계약학과인 군상담심리학과를 설치하고, 오는 3월부터 2년간 학위과정을 운영한다. 강의는 아간과 주말을 이용해 진행되며, 소정의 학위과정을 마치면 문하시 학위가 수여된다.

남천현 총장은 "지난 2015년부터 우리 대학교와 제35보병사단은 군 계약학과 운영을 통해 학군 협력의 표본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군부대 간부의 재교육을 통해 맞춤형 리더십을 배양하고, 군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혁재 사단장은 "이번 협약으로 학군교류 활성화의 기반 마련은 물론, 군부대 간부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서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로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은성 기자

원광대, 실전창업강좌 원광스타업유니버시티 1기 발대식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 IINC 3.0사업단 창업교육센터는 실전창업강좌와 원광스타업유니버시티 1기 발대식을 지난 28일 교내 프라임관에서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앞으로 2주간 진행되는 창업교육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하는 현진진 멘토단 대표와 윤현영 참여 학생 대표의 '성실참여'를 통해 교육에 임하는 학생

과 멘토들의 각오를 확인했다. 특히 전북권 학생창업 출신인 현진진 멘토 대표 등 10인의 청년 창업가들은 멘토로 참여해 경험 중심의 공감 멘토링은 물론, 이후 실전창업투자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